



마음

기술표준총괄과 원종두

봉사라는 일... 한번쯤 해보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 있었다. 그러던 차에 해당(기술표준원 여직원회)에서 봉사활동을 계획중이었고 드디어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봉사가기전부터의 뿌듯함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호기심으로 4월초 처음 아동임시보호소를 방문했다. 아동임시보호소란 말에 웬지 모를 동정심과 가슴에런 그런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깨끗한 어린이집을 연상케 했고 아이들은 아이들다운 밝고 맑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상주하시면서 엄마역할을 해주시는 봉사자들을 보면서 나의 고만하고 성숙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다. 그곳은 우리가 한번쯤 가서 봉사라는 것을 해볼만한 곳이 절대로 아니다. 버려진 아이들이 잠시 머무르는 곳이지만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보금자리인 것이었다. 거기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인 것이다. 우린 매월 2차주 토요일에 봉사활동을 하기로 상담을 하고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을 다잡으며 돌아왔다.

여직원회에서 다같이 모여서 처음 봉사를 하러갔다.

날이 더워서 아이들은 밖에 나가서 놀고 우리는 보호소에서 주는 각각의 일을 맡아서 하기시작했다. 계단 청소, 목욕탕청소, 말레 널면서 하는 일, 주방에서 필요한일...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로 많았다. 청소를 다 마치고 잠시 선생아실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우리는 선생아들에게 우유를 주는 것으로 그날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가려는 맘 한 구석에서 씩씩함을 느꼈다.

지금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야 할 아이들이 사람의 손을 찾고 서로가 안아주기를 바라건만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

우리 여직원들이 아이들이 너무 이뻐서 안아주면 그새 정이들어 울며불며 떨어지지 않아 어쩔 줄 몰라하던 일이 생각난다.

보호소 아이들은 우리가 한번 안아준 것이 마음에 남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들이 돌아가고 나면 아이들이 다시 본래의 생활로 적응하기 힘들고 그런 아이들을 돌보시는 선생님들 역시 힘들다고 한다.

우리는 어쩔수 없이 아이들이 울더라도 그냥 딱정을 부리는 방법밖에는 없었다.



기술표준가족

그일 때문에 찢찢매던 얼굴에는 '어떡하면 좋으
냐?'는 당황한 얼굴표정이 아직도 머리속에 그려
진다.

많은 도움은 아닐터지만 작은 도움이 아이들에게
따뜻함으로 남겨졌음 한다.

우리 해담에서 발을 벗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천사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은 아닌 듯 싶다.

한마디 덧붙인다면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빛은 선하
면서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이니까...

주말에 약속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하지만 모든 약속도 뒤로 미룬 채 와서 아주 더운
날 목욕탕 청소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물을 튀기면
서 더움을 없애기도 하고... 생각하면 절로 입가에 미
소가 생긴다.

이번 주에도 새롭게 조를 이루어 봉사를 간다. 이
젠 아이들이 보고싶고 아이들과 외 약속 때문에 자연
스럽게 토요일 날 시간을 비워두는 여직원들도 많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봉사할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마무리 잘 지을 수 있도록 다른
직원들의 관심과 협조가 있다면 보호소의 아이들은
조금이나마 더 풍요로운 한해가 되지 않을까 싶다.

